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설맞이 가정예배 모범**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러니  
(사편 103:17)



# 설맞이 가족예배 모범

**목 도**  
(다 같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65:4)

**신앙고백**  
(다 같이)

##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다 같이)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강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 인도자(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2:1~10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설 교**

##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가 족  
합심기도**

1.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3.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베드로전서 2:1~10

베드로전서는 네로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큰 핍박이 시작되려 하는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속에서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말씀으로 점검해 봅시다.

### 변하지 않는 믿음을 따르는 가정 (1~3절)

세상의 삶은 음식이 썩어가는 것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름이 아닌 빠름을 선택하고, 교회 안과 밖의 삶에 언행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요?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절에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 냄새를 따라 고개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가치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듯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 (4~8절)

구원받은 성도는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사용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 사용 받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가정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따라 복음의 길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 부르심을 받은 가정의 삶 (9~10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된 족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권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에 위로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위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설 명절에 모인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가 다시 발견되어 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가정예배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게 약속으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